

2021년 27회

법무사 1차 시험 총평

헌법	권순현 박사
	이재영 법무사
상법	이상수 박사
민법	이준현 박사
	이혁준 교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
	김지후 교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김기찬 법무사
공탁법	김경태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

2021년 27회 1차 시험 『헌법』 총평

담당교수 : 권순현 박사 (주간반)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21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유사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출제분석)

1. 출제범위

이번 2021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기본원리에서 1문, 법치주의(법률유보)에서 1문, 정당제도에서 1문, 선거제도에서 1문, 지방자치제도에서 1문으로 총 5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론에서는 기본권 복합문제 1문, 재산권 1문, 양심의 자유 2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문, 직업의 자유 1문, 사회적 기본권 1문, 근로의 권리 1문으로 총 8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1문, 정부(대통령) 1문, 법원 1문, 선거관리위원회 1문,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3문으로 총 7문제가 출제되었다.

2. 출제의 특징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박스 문제 1문을 출제하였다.

둘째, 헌법조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부속 법률은 공직선거법이 반영되었고 다른 부속 법률의 출제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헌법소송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제도 역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넷째,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를 출제하였고, 2020년에 나온 최신 판례도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3.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

헌법조문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헌법조문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부속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4. 판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판례 문제입니다.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양벌규정 판례가 처음 출제가 되었고,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2문제나 출제되었으며, 2020년 최신 판례 중에서 2문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나누어 드린 최신판례자료(2020. 6월 ~ 2021. 4월)에 수록된 판례입니다.

판례 문제를 대비해서는 기본서 외에 판례서(예를 들면 제 책인 '헌법판례선')와 제공된 최신 판례자료 등을 통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작년대비 난이도

2020년 시험에 비하여 2021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같은 수준에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대 책)

대책으로는 헌법과목에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2021. 6월. 권 순 현.

2021년 27회 1차 시험 『헌법』 총평

담당교수 : 이재영 법무사 (야간반)

안녕하세요.

올해의 헌법 시험은 비교적 기본적이면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출제되었던 2020년의 헌법 시험과 비교해 볼 때에는 한 문제 정도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목표치인 15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징적인 점은 정당제도 관련해서 무려 3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도 각 2문제씩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총론에서는 기본제도 부분, 기본권론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진 것은 기존의 경향과 동일합니다.

출제 범위는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목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문제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떠나서 언제나 실제 점수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밀돌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2차 시험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발표 시까지 커트라인에 대한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차 과목에 집중해서 2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셔서 꼭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6. 22.

이 재 영 올림

범위	목 차	내 용	출제분야	
총 론	헌법의 의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의 보장			
	헌정사			
	국가 구성요소			
	기본원리	① 법률유보 - 조례에 대한 위임	판례	
기 본 권	기본제도	① 위헌정당해산심판 준용규정 ② 위헌정당해산제도 ③ 복수정당제 ④ 선거운동 ⑤ 지방자치단체	판례 판례 판례 판례	조문 조문 조문
	총론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개인정보자기결정권)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③ 양심적 병역거부 ④ 양심의 자유 ⑤ 재산권 ⑥ 직업의 자유	판례 판례 판례 판례 판례	
	사회권	①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② 근로의 권리-퇴직급여청구권	판례 판례	
통 치 구 조	청구권			
	참정권			
	국민의 의무			
	기본원리			
	국회	① 회기계속의 원칙		조문
	대통령	① 대통령의 권한 - 계엄선포		조문
법 원	정부	① 선거관리위원회		조문
	법원	① 법관징계-대법원 단심제	판례	
	헌법재판소	① 헌법소원 대상 ② 위헌법률심판	판례 판례	

2021년 27회 1차 시험 『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상수 박사 (주간반)

수험생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출제문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총평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제 수준은 작년에 비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야 할 것이지만, 작년과 같은 정도나 조금 오를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잘 만나오던 부분에서 1~2개는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해상법 문제가 두개 출제되었고, 이 중 한개는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총칙이나 상행위, 회사 및 보험, 어음수표법의 내용은 평이한 내용의 조문과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상 문제의 전체적 난이도에 따른 간략한 분석이며, 구체적인 풀이는 추후 해설 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2021년 27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준현 박사 (주간반)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속에서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으며, 또한 시험까지 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직전 시험이었던 2020년과는 조금 다르게 그 난이도가 소폭(1~2문제정도) 상승하였다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조문을 묻는 지문이 24개, 판례를 묻는 지문이 170개 출제되었으며, 박스형식도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법총칙 8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총론 7문제, 채권각론 6문제, 친족상속법 6문제, 종합문제 1문제가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물권법에서 다소 많이 출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풀이 과정이나 Final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2020년, 2021년 판시한 내용의 최신판례지문이 총6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간절한 소망으로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준현 올림

☞ 출제 경향 분석

분야별 출제 문항수	민법총칙 8 물권법 12 채권총론 7 채권각론 6 친족상속법 6 종합문제 1
형식별 출제 분석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형식 33 옳은 것 고르기 형식 7 박스형식 1 판례를 묻는 지문 170 조문을 묻는 지문 24 2020년 판시한 최신판례 지문 6

2021년 27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혁준 교수 (야간반)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시간이 20분 더 늘어났다는 점과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매우 난감했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 ② 금년 시험은 다른 해보다 지문의 길이가 좀 더 길었고, 판례의 결론을 넘어 그 법리까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출제함으로써 난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과거의 유형에 맞춰서 어설픈게 대비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장문의 판결요지를 볼 때 중간을 생략하고 결론만을 암기하는 식으로 보면서 공부했다면 지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읽는 데에 시간을 다 허비하였을 것이고 시간 안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문 중에는 민법적 리결 마인드만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 ③ 작년과 달리 Box형 겸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고, 최근 경향대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2문제 이상을 묻는 식으로 출제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 ④ 위와 같은 점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및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처했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볼 때 작년에는 6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합격선이라면, 금년에는 40문제 중 8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합격선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별적 평가 및 예상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5개 정도였습니다.

- ② 특히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물권법과 채권법, 물권법과 민법총칙, 민법총칙과 채권법 및 가족법의 법리가 결부되는 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아닌 관련된 쟁점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간명히 말하면 민법의 단편적인 사고보다는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③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종합적·전체적인 민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수험생은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감지하여 2022년 시험을 지혜롭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영역별 평가

영역별로 보면,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8문제	14문제	12문제	6문제	X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9문제	13문제	11문제	6문제	1문제

작년과 달리 Box형 겸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영역별로는 작년과 비슷한 문항수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5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상당히 길었으나 이는 매년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었어야 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소 처음부터 판결요지를 볼 때 중간을 생략하는 식으로 보면서 공부했다면 그만큼 대처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판결요지를 볼 때 일단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살피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문장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판결요지가 읽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도 수험생은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요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하여, 포인트별 패턴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한 수험방식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민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칙 ▶ 미성년자 ▶ 법인 ▶ 종물 ▶ 불공정한 법률행위 ▶ 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대리 ▶ 무효와 취소 ▶ 부관(조건) ▶ 소멸시효
채권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 채권자취소권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상계 ▶ 보증채무
채권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행 ▶ 해제(합의해제) ▶ 임대차 ▶ 도급 ▶ 위임 ▶ 예금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권변동 ▶ 등기 전반 ▶ 점유권(제208조) ▶ 소유권 일반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합 ▶ 취득시효 ▶ 공유 ▶ 명의신탁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권리질권 ▶ 저당권(물상대위, 일괄경매청구, 공동저당)
가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 ▶ 성년후견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의 분할 ▶ 유류분과 기여분

이렇게 본다면, 각 영역별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골고루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년 출제되었던 주제,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이나 변제 등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Box형 겸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으나, 이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민법의 단편적인 사고보다는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문제의 수가 매우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데,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예상되는 컷트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

2021년 27회 1차 시험 『가족관계등록법』 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주&야)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 시험지 면수

	출원인원 (전년대비)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헌·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3,625명 (+ 112명)	61점	22 p.	19.5 p.	2 p.
2018년	3,704명 (+ 79명)	58.5점	19.5 p.	20.5 p.	2 p.
2019년	4,135명 (+ 431명)	60점	20.5 p.	21.5 p.	1.5 p.
2020년	4,413명 (+ 278명)	65점	22.5 p.	22 p.	1.5 p.
2021년	4,910명 (+ 497명)		26 p.	22.5 p.	2 p.

◎ 2021년 출제 분석

- 총 10문제 중 총칙에서 2문제, 신고각론에서 3문제, 국적의 득상 및 국제사건에서 2문제, 가족관계등록비송 2문제, 과태료 1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 지금껏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선례에서 다수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 기출지문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책형 45번, 49번과 50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1책형 42번은 최근 개정된 예규를 정답지문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위 4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할 '기본문제'에 해당합니다.

1책형 41번, 43번, 44번, 46번, 48번 등 모두 5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 1책형 41번 : 문제 선례를 정답지문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서 172면 각주에 있는 선례로 강의에서 전혀 강조하지 않은 선례라서 수험생들 대부분이 정답을 고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1책형 43번 : 낯선 지문들로 구성된 문제이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1책형 44번 :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정답 지문이 출제되어 혼자서 보지 않았다면 정답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1책형 46번 : 정답 지문이 생소한 판례이고, 다른 지문들 역시 까다로운 지문들로 구성되어 정답을 찾기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 1책형 48번 : 규칙 제69조의 특종신고서류 등 전산접수장에 관한 내용을 정답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 2021년 출제 총평

1. 이번 2021 시험에서는 ‘기본문제’가 4문제 정도,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5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2. 예년 대비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여태껏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선례에서 다수의 지문이 출제되는 등 전체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3.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총 10문제 중 5문제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6문제 이상 득점하였으면 합격자 평균 이상 고득점입니다.

◎ 2021년 합격선(cut-line) 관련 예측 (-1 문제)

예상 cut-line(합격선)과 관련하여 이번 시험의 경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늘어나고, ‘기본문제’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이번 2021년은 최소 1문제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맺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한테도 위로받기 힘든 수험생활을 혼자서 묵묵(默默)히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完走)하여 응시(應試)한 수험생 모두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를 보냅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뒷면)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목 차		2017	2018	2019	2020	2021	
제1편 총 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1	2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특종신고)					1	
	제7장 등록부등의 공개	2		1	1	1	
제2편 등록사무 처리절차	제 1 장 총칙	제2절 신 고		2	1		
		제3절 직권 정정·기록				1	
		제4절 접수 심사 등			1	1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 보완					
		제6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 쇄					
	제2장 출생신고		1		1	1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1				
	제6장 혼인신고					1	
	제7장 이혼신고		1		1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1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1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 보)					1		
제3편 국 제 등 록 사 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 총론	2		1		1	
	제2장 국제등록사무 각론		1	1			
제4편 등록부의 정정	1		1	1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록부창설 등)		2		1	2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제7편 벌칙, 과태료	2				1		
총 합 문 제	1		2	2			

2021년 27회 1차 시험 『민사집행법』 총평

담당교수 : 김경태 법무사 (주간반)

총칙,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채권에 대한 집행 그리고 보전처분 부분에서만 출제되고,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중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과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부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아니한 것은 전년도와 같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부분의 비중이 줄고, 채권에 대한 집행부분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공탁에 관한 내용의 판례 등이 집행법문제에서도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탁법 중 특히 집행공탁부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년도보다 지문이 더욱 길어졌고(2020년 8쪽, 2021년 10쪽), 새로운 유형의 문제(Box형 판례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시간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더욱 심하게 받았을 것 같다.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고, 무난하게 느껴지는 것이 전년도보다는 제법 줄어들었다.

이에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전년도보다는 득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년도 대비 -3문제)

2021. 6. 20.
김 경 태

2021년 27회 1차 시험 『민사집행법』 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야간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2021년 제1차시험이 끝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시험은 끝났으나 결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시험은 훌훌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책을 보며 다음 시험을 준비하자는 당부(當付)를 드립니다.

◎ 시험지 면수

	출원인원 (前年 대비)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현·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민사집행법
2017년	3,625명 (+ 112명)	61점	22 p.	19.5 p.	8 p.
2018년	3,704명 (+ 79명)	58.5점	19.5 p.	20.5 p.	8 p.
2019년	4,135명 (+ 431명)	60점	20.5 p.	21.5 p.	9 p.
2020년	4,413명 (+ 278명)	65점	22.5 p.	22 p.	8.5 p.
2021년	4,910명 (+ 497명)		26 p.	22.5 p.	10 p.

◎ 2021년 출제 분석

1. 총론 5문제, 재산명시절차등 1, 부동산경매 17, 유체동산 0, 채권집행 7, 보전처분 5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4년간 출제 빈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론	2	8	6	5
재산명시절차 등	1	0	0	1
부동산경매	22	14	20	17
유체동산	1	1	0	0
채권집행	4	5	3	7
보전처분	5	7	6	5
기타(강제관리, 선박등, 비금전집행)	0	0	0	0
합	35문제	35문제	35문제	

2.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이 2018년 50 여 개, 2019년 50 여 개, 2020년 50 여 개 출제되었는데, 금번 **2021년** 시험에서는 55 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40 여 개 정도를 생소한 지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2021년 4월 법원승진시험(사무관 20문) 지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최신판례(2020년~2021년 선고)는 2개 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예규 포함) 대략 2 : 7 : 1 비율로 출제되어 예년과 비슷합니다.

◎ 2021년 출제 총평

1. 시험지

시험시간은 20분 더 늘어나고 전년 대비 2교시 시험지 면수는 거의 동일하나, 민사집행법은 예년 대비 1.5 p 더 길게 출제되었습니다.

2. 문제

작년 2020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가 22문제(대략 62점)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문제의 대부분이 생소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아예 정답을 찾기 곤란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9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1** 시험에서는 '**기본문제**'가 19문제(대략 54점) 정도,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6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기본문제**'와 '**아주 까다로운 문제**' 모두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미기출 지문이 더 많이 출제되었고, 판례 원문을 통째로 지문화하여 출제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전년 대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3. 소 결

시험지 구성 문제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2021년** 시험은 **전년도 보다 2문제 정도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35문제 중 23~24문제(66점~68점)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26문제(74점) 이상 득점하였으면 합격자 평균 이상 고득점입니다. '**기본문제**'가 19문제(대략 54점) 정도 출제되었으므로 조문·판례와 기출지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3~24문제 정도 득점이 가능할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4. 실전 시험장에선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4과목을 한꺼번에 풀어야 하고, 『민사집행법』은 태생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면서 배점도 커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고충은 언제나 큼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문제가 적절하게 출제되어 변별력은 다소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실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까다로운 문제들을 꽤 많이 출제한 점은 출제위원들이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시험이란 '실력(實力)'을 가리는 것이지 '운(運)'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 2021년 합격선(cut-line) 민사집행법 예측 (-2 문제)

이번 시험의 경우 시험지 면수 증가와 신 유형의 문제 다수 출제, '**기본문제**'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이번 **2021년**은 **2문제** 정도 **하락**으로 예상합니다.

◎ 맺으며

코로나라는 역경속에서 힘들게 수험준비를 하고 응시(應試)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고(勞苦)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1편 총 칙	집행기관					1
	즉시항고	1				
	집행이의		1	1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	1			1	
	집행비용	1		1	1	
	집행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강제 집행) 총 칙	집행당사자	1				
	집행권원	1		1		1
	집행문			1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적극적 요건, 집행장애)	1	1		1	
	집행문구제절차			1		
	청구이의의 소	1		1	1	2
	제3자이의의 소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2	1	1	
재산명시 절차 등	재산명시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압류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	1		1	
		강제경매의 요건, 강제경매의 신청	1			1
		강제경매개시결정(심리, 목적물 조사)		1		
		기입등기촉탁, 강제경매개시결정 송달				
		압류의 효력				
	압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2		1
		부동산 이중경매	1	1		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1			1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 승계	1			1
	현 금 화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		1
		배당요구종기결정·공고·고지, 채권신고 최고			1	1
		현황조사, 평가, 최저매각가격 결정			1	
		매각물건명세서	1	1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		1
		개별매각, 일괄매각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매각 실시 절차				1		

배당	공유자의 우선매수	1				
	새 매각					
	매각결정절차	1	2	1	1	
	매각대금의 지급		1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	1		1
	소유권의 취득		1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1	1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	1	1	1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	1		1	
	임금채권			2		1
	조세·공과금채권	1			1	
	가압류채권		1			2
	배당표의 작성(배당순위, 구체적인 배당방법)				1	
	배당기일의 실시(배당이의)		1	1	1	
	배당이의 소송	1	1		1	
	배당의 실시			1		1
	경매신청의 취하				1	
부동산경매 종합문제	1	3		1	1	
부동산 강제관리						
선박 등						
유체동산						
채권집행	집행의 대상(피압류적격)		1			1
	압류명령	1			1	2
	추심명령	1	1	1		
	전부명령		1	2		1
	특별한 현금화방법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집행의 경합	1			1	1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배당절차	1		1			
채권집행 종합문제	3	1	1	1	2	
비금전집행(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의경매, 형식적경매)						
제4편 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소송의 관할		1		1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보전소송의 소송물	2		1	1	1
	보전처분 신청, 심리와 재판	1		1	2	2
	보전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2		1
	본집행으로의 이전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1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1			
보전처분 종합문제		2	3			

2021년 27회 1차 시험 『상업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김경중 법무사 (주&야)

■ 제27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2문제, 비송사건절차 2문제, 상업등기와 과태료재판 교차지문 1문제로 비송사건 절차법 분야의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 특히 주식회사 등기 부분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여 최근 2년 보다 출제 비중이 늘어났다.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낯선 지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문제 선이고 기출 문제로 출현했던 평이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즉, 예년에 비하여 지문 구성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고 확실히 답이 되는 지문과 아닌 지문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특별히 많이 들여야 하는 문제들도 예년에 비하여 적었다고 판단된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면 상급 2문제, 중급 3문제 정도로서 나머지 10문제 가량이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었다. 즉,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는 조금 쉬웠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들이 상업등기 총론과 주식회사 등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10문제 전후를 맞춘 수험생들이 예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3문제 이상의 고득점자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습방향

25~26회, 2년에 걸쳐 비송사건절차법의 출제 비중이 늘어났던 것이 이번 27회 시험에서 다시 상업등기 특히 주식회사 중심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론이나 실무의 비중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사료된다.

상업등기법에 11~12문제의 비중을 놓고 비송사건(법인등기/과태료 사건 포함)에 3~4문제의 비중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 공부의 비중으로 보면 주식회사 60%, 상업등기 총론 20%, 비송사건재판 총론 10%, 나머지 10% 정도의 순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상법의 해당 절차와 등기 첨부서류를 연결시켜 정리하고, 그 외에 상업등기법의 총론의 지문들을 정리한다면 상법과 상업등기법 양 쪽 모두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업 등기	총론		2	4	3	3.5	3.5	16	
	상호				1			1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0	
	합명회사							0	
	합자회사							0	
	주식회사		7	7	3	5	7.5	29.5	
	유한회사				1		0.5	1.5	
	외국회사			1		1		2	
	유한책임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2				1	3	
비송 사건	총칙		2		2	1		5	
	민사 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1				1
		신탁에 관한 사건					1		1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1					1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1				1
	상사 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3		5
		사채에 관한 사건				1			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0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0.5	0.5	
총계		15	15	15	15	15	75		

2021년 27회 1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유석주 법무사 (주간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주법무사입니다.

올해 2021년도 시험은 문제 분석이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4개 정도) 출제되었다.

수험현장에서 정답을 고를 때 약간 망설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특조법에 관련된 문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이 문제들도 기본서를 탐독하고 문제집을 2회독 이상 읽어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시간에 시험 보는 공탁법문제의 난이도가 2020년도와 비슷하다면 2021년도 【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에서의 커트라인 상승효과는 2점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법학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한다.

2021년 27회 1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김기찬 법무사 (야간반)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까지 한 길을 달려오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라며 2021년 부동산등기법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II. 총평(제27회 시험의 특징)

1. 늘어난 조문의 비중

(1) 올해에는 작년대비 예규와 선례의 비중이 줄고 조문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조문(37%), 예규(34%), 선례(29%)의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

(2) 조문의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학은 조문으로부터 시작하며 조문을 해석하고 실무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예규·선례이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이 좀 더 단조롭고 수험생들이 많이 접하는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3) 물론 각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지문들이 문제에 한지문 또는 두지문정도로 출제되기는 했지만, 늘어난 조문의 비중과, 늘어난 시간으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신 예규·선례의 빈출

(1) 올해시험은 최신 예규 및 선례지문이 작년보다 적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사항(판결, 합필제한 등)은 중요한 만큼 이번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① 공유물분할판결의 의무자 단독신청규정,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비교적 최신), ③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④ 등기사항의 공시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⑤ 토지개발등기규칙(비교적 최신)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출되었거나 개정된 부분이 빈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올해는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내년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기출의 반복성

(1) 법무사 기출문제의 중요성

- ①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금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150개의 지문 중 99지문 가량이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즉 65% 이상이 기출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기출지문이 5개 포함된 문제는 7문제, 4개 포함된 문제는 6문제, 3개 포함된 문제는 10문제, 그 이하는 7문제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출지문이 3개 이상으로 꾸러진 문제가 전체의 75% 이상으로 출제된 점을 볼 때 올해시험에서의 기출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② 또한, 20문제가 이미 반복되었던 기출지문이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만큼 기출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정리하여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 ③ 기출지문부터 숙지하여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에서의 압박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섭렵하여 시험장에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법원직 문제의 호환성

- ①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채시험과 사무관승진시험이 유사하게 출제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② 올해 시험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21년 9급 공채시험(2월)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4월)에서 빈출된 지문이 그대로 우리 법무사시험에 지문으로는 13지문, 문제로는 12문제 속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 ③ 올해 시험에 기출된 법원직시험이 우리 시험에서 각 문제별로 1지문 정도로 출제가 되었지만 정답지문이 된 문제는 5문제나 있었습니다.
- ④ 법원직에서 정답지문이 된 지문이 우리시험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온 문제가 2문제, 법원직에서 정답지문이 아닌 지문이 우리시험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온 문제가 3문제로 집계되었습니다.
- ⑤ 결과적으로 법원직문제에서 정답만 공부했어도 2문제, 다른 지문까지 꼼꼼히 보았다면 총 5문제의 정답지문은 미리 확인한거나 다름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 ⑥ 결론적으로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법원직시험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4. 조문·예규·선례의 비중

- ① 올해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문은 56지문, 예규는 51지문, 선례는 43지문으로 집계되었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②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조문이 약 37%이며 예규·선례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등기법은 예규 및 선례의 비중이 높으므로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5. 총평

- ① 기본에 충실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조문문제가 늘어난 점, ② 예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출제가 되어진 기출지문이 대거 등장한 점, ③ 사례형 문제 및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점, ④ 모든 문제가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하락하였고 23문제(작년기준이상)를 득점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수험생 모두 고득점 하시길 기원합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며 더 높은 능선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심기일전하시어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찬 법무사 올림 -

2021년 27회 1차 시험 『공탁법』 총평

담당교수 : 김경태 법무사 (주간반)

파산과 회생절차에 관련한 공탁이 새로 나타난 것 외에는 공탁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지문도 그렇게 길지 않아(2020년 4쪽, 2021년 3쪽 반), 시간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도 훨씬 덜 받았을 것 같다

난이도도 전년도보다 무난하고 평이하게 출제되어, 기본이론과 기출문제의 지문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전년도 보다는 득점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1. 6. 20.
김 경 태

2021년 27회 1차 시험 『공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천교 법무사 (야간반)

공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지문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공탁법의 문제 전체의 분량이 작년보다도 반페이지가 적어서 최소한 2-3문제 정도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박스형 문제도 재작년은 5문제, 작년은 3문제였으나 금년은 2문제로서 오히려 줄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 부담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작년 보다 불의타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로 파산이나 회생관련 문제가 1-2문제 있었습니다.

또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작년에는 5개 가량 출제되었으나, 금년에는 7문제가 출제되어 작년보다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소할 수 있는 위 파산이나 회생관련 1-2문제 말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지문이라서 정답을 선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들이었고 시간부담도 오히려 작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년 공탁법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